

대구지역인사 오찬간담회

지방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조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많이 기운을 차리신 것 같습니다. 그 지하철 사고 때문에 대구 시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기운을 미처 차리지 못할 만큼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을 봤는데 오늘 기운이 얼추 살아나신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가정책하면 기술혁신과 동북아시아, 지방화시대 이렇게 대강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시장시스템 혁신하고 사회문화 혁신하고 부정부패도 다 청산하고 추방하고 이런 등등의 많은 목표를 내세우지만 크게 한국의 전략이 무어나 했을 때 기술혁신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애정이 가는 정책은 지방화입니다. 기술혁신은 대통령 아니라도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북아 전략도 간판만 붙인 것이지 동력이 있습니다. 동북아 구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지방화입니다. 지방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또 강렬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해소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봐서 국가경쟁력 전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화전략은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가 수도권을 위한 것 아닙니다. 지방이 되살아 나야합니다.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여기에 문화도 모이고 그래서 지방이 서울과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30년 동안의 지방위축의 역사를 5년 동안 어떻게 되돌려놓겠습니까. 제 희망은 30년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데는 2, 30년 걸린다고 보고 내 임기동안 바닥치고 올라가는 반전의 토대를 마련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분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화 전략은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정부가 확실히 권한 갖고 자치할 수 있도록 분권하고, 자치권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대학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 기업체 모두가 혁신주체라고 하는데 혁신체계를 만들어서 지방도 역시 기술혁신의 전략으로 해 나가야합니다. 지방의 기술혁신과 나아가서는 지방의 지식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지방 스스로 나아갈 방향 설계하고 펼쳐나가되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혁신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모든 것을 서울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행정수도는 지방으로 가야합니다. 행정수도가 대구까지는 못 와도 1시간정도로 가까운 데로 옮겨, 대구 국회의원들이 아침에 국회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는 수도권 집중의 해소책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렇게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려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분권형국가로 분산형 국가로 갑니다. 정치행정에 있어서 분권으로 가고 경제에 있어서 분산된 국가. 이걸

하기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은 국가개조수준까지 그렇게 분권형 정책 지방화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수 좀 안치십니까.

어느 부처에서부터 하는 가하면, 행자부가 자치하고 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야합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각기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갈 것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전정부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권한과 돈 그 밖의 모든 자원을 다 샅샅이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지방이면 위촉되고 망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방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지방도 합리적 모델을 개발하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얘기를 자꾸 하면 많은 데 하여튼 일곱 가지 과제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로 따로 발표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합니다. 그중에서 예산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권한의 이양과정에서, 하나하나 목적을 지정하던 자금도 이제 포괄적으로 지방이 알아서 쓰는 방향으로 되지만 그 외에 수도권에 배분되던 많은 예산도 지방으로 이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기관이 서울에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서 기술혁신이 되냐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4백여개의 연구소를 전부 다 분석해서 지방가면 오히려 더 잘되겠다 싶은 연구소를 지방으로 분산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밀어내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이 연구소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에 대해서는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제를 꾸려야합니다.

연구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활발하게 살아서 그 지역정부가 어떻게 하

느냐에 따라 그 지역에도 기여하고 잘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연구소도 죽고 지방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와 지방정부 지방대학 사이에서 긴밀히 협력해서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가장 맞는 연구소를 찾아 유치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구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갑니다. 유인책 마련하면 임기동안 다 갈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이전계획은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대구에서 얘기하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맨 처음 대구에서 왔을 때는 대구는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던 도시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대구에서 하자고 했고 섭섭지 않게 대구에 가보자고 해서 대구에 왔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아파할 큰 불행이 있어서 왔습니다.

대구에는 벤처의 기반을 가진 확고한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왔냐고 하는데, 대구가 일등을 해서 왔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은 가장 잘하는 곳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니면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곳에 하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시는데, 앞으로 지역혁신체계, 혁신 클러스터라는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을 지원하려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된 동네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의 방침을 얘기하고 배우고, 서로 대화해서 정보를 나누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구와 경북 테크노파크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약속대로 대구로 왔습니다. 역시 경북 테크노파크까지 함께 고려해서 왔습니다. 대구의 비전을 무엇일까 밀라노프로젝트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는 답답합니다.

광주는 광산업 있고 문화도시라는 컨셉을 열심히 다듬고 있어서 그쪽을 밀어주면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전북은 전주는 그런대로 있는데 대구경북은 비전이 무엇인가 이번에 와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고한

벤처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야 된다는 열의와 의지를 갖고 있고 그에 맞는 성과도 갖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때는 확실하게 올 이유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대구가 갑갑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 앞에 놓고 연설이 길었다. 이것을 제 판에 대구 선언이라고 구체적인 지방화방안에 대해 결론을 모아서 말하는데 대구 선언이다. 대구에서 힌트를 확실히 얻었으므로 대구구상이라고 이름 붙여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